

吉益東洞이 사용한 人蔘 考察을 통한 傷寒論 處方에서 人蔘의 運用에 대한 小考

김종오* · 오준호

경희대학교 의사학교실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Ginseng in the Prescriptions of *Shanghanlun* in Consideration of Todo Yoshimasu's Usage

Jong-oh Kim · Jun-ho Oh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origin pla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ginseng in *Yakucho*(藥徵) and *Shanghanlun*(傷寒論).

Method :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bibliographies about ginseng were examined.

Results : 1. Ginseng used by Todo Yoshimasu(吉益東洞) in 18th century Japan was Goshuginseng(御種人蔘) which is Panax Ginseng such as Korea Ginseng. This one is bitter and effective in epigastric distress and hardness.

2. The purpose of ginseng in *Shanghanlun* compared with other medical books shows a big difference. Contemporarily, Ginseng is used to improve general vitality, strengthen spleen and stomach, and promote production of the body fluid. On the other hand, ginseng was taken to cure the epigastric distress and hardness in *Shanghanlun*.

3. When using the prescriptions in *Shanghanlun*, the purpose of ginseng is curing the epigastric distress and hardness. Hence, we must find which ginseng used in Korea, China and Japan is effective to cure the epigastric distress and hardness.

Conclusions : When using the prescriptions in *Shanghanlun*, the purpose of ginseng is curing the epigastric distress and hardness.

Keywords : ginseng , *Yakucho*(藥徵), Todo Yoshimasu(吉益東洞), *Shanghanlun*(傷寒論)

*교신저자 : 김종오, 복치의학회, drinktea@hanmail.net

緒 論

『傷寒論』은 동아시아 의학기록 중 가장 오래된 처방집으로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傷寒論』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이후의 간행본들이 『傷寒論』의 진의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였다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상한 처방을 연구하기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傷寒論』를 전통의학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로 삼아왔던 중국·일본과는 달리 조선시대 이후 국내의 『傷寒論』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¹⁾.

다행이도 최근 수년 동안 국내에서 『傷寒論』 처방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그에 대한 임상활용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傷寒論』 처방에 쓰이는 약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傷寒論』에서 제시한 효능이 가장 잘 나타나는 약재를 찾고자하는 한의사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²⁾

인삼도 예외가 아니다. 『傷寒論』에는 인삼이 포함된 처방이 총 22종이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삼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어떤 이들은 인삼의 뿌리 전체를 쓰기도 하고, 인삼의 잔뿌리만을 사용하거나 벗겨낸 껍질만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므로 『傷寒論』 처방에 적합한 인삼의 요건과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이와 같은 작업(『傷寒論』 處方과 條文을 분석하여 약의 치료 목표를 규정하고 그것을 가장 잘 치료하는 약재를 연구함)을 18세기에 했던 사람이 바로 일본의 의사인 吉益東洞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吉益東洞이 인삼의 효능을 검증하는데 사용했던 인삼을 考證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方 法

한국과 일본의 인삼 재배·유통에 관한 연구 결과들과 동동의 저서인 『藥徵』의 기록을 통해 吉益東洞이 사용한 인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 『傷寒論』 성립 당시의 인삼과 吉益東洞이 사용한 인삼, 그리고 현재 재배되고 있는 인삼으로 상한론 처방을 운용할 때 적합한 인삼을 찾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調査內容

1. 吉益東洞이 사용한 人蔘에 대한 考察

18세기 이전까지 일본에서 인삼은 매우 귀한 약재였다. 인삼의 수급은 모두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는 인삼의 자생지는 만주의 통화, 길림, 흑룡 등 3성의 밀림지대와 백두산, 흑룡강 유역과 연해주지방, 우리나라 전역 정도이다.³⁾ 일본 자생 인삼

1) 임상의를 위한 상한론 강좌. 민족의학신문사. 2009. 9.

이 책에서 강연석(원광대학교)은 그 이유를 첫째, 고려 중기 이후 향약의학을 강조함, 둘째, 조선 중기 이후 동의보감을 강조함, 셋째, 전염병의 문제를 상한이나 온병으로 총괄하여 대처하지 아니함, 넷째, 외감이나 사기보다는 인체의 정기와 내상을 강조함의 네 가지로 꼽았다.

2) 시호의 예를 들면 야생 시호와 재배 시호, 종이 다르지만 시호와 혼용되었던 은시호, 일본에서 재배되었던 삼도시호, 삼도시호의 국내재배종 등으로 임상에서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에 대한 내용은 일본의 기록은 더 연구해보아야 하겠지만 중국과 한국의 자료에서는 현재 까지는 찾지 못하였다. 적어도 현재 한의학에서 인삼으로 사용하고 있는 Panax Ginseng이 일본에서 자생했다는 근거는 없다.

현재 일본에서는 인삼이 재배되고 있는데 인삼이 재배되기 훨씬 전부터 일본은 중국과 조선에서 인삼을 수입했다. 조선인삼이 일본에 널리 알려진 것은 오래 전부터였으며 17세기 이후로는 연간 1,500~2,000근이 수입 되었다.⁴⁾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 파견된 조선통신사의 문답기록을 보면 일본의사들이 조선의사들에게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것 중의 하나가 인삼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일본에서 쉽고 저렴하게 인삼을 얻고자하는 욕구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사들이 조선의 의관들을 통해 얻고자했던 인삼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면 첫째가 인삼의 대용품에 관한 사항들이고, 둘째는 인삼의 생장과 형상 및 감별에 관한 것, 셋째는 인삼의 재배 방법이었다.⁵⁾ 특히 1748년 이후 일본의사들은 조선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캐묻는다.

이와 같은 18세기의 일본 상황을 미루어볼 때 일본에서 인삼재배가 가능해지기 이전에는 인삼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18세기를 살았던 吉益東洞이 사용한 인삼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에 대한 고찰을 당시 일본의 인삼수급 상황과 東洞의 활동 시기, 그리고 『藥徵』에 언급된 인삼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吉益東洞의 활동시기와 御種人蔘의 재배

吉益東洞은 1702년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의학을 배웠고 1738년(37세)에 수도인 京都로 이사해서 한의원을 열고 1773년(72세)까지 활동하였다. 43세에는 “가난이 더욱 심해졌다”고 하였으나 46세(1747년)에는 “의업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으며 제자도 빠르게 많아졌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40대 중반부터 이름을 날리기 시작해 60대 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⁶⁾ 말년의 대표작인 『藥徵』은 東洞 사후 12년이 지난 1785년에 간행되었다. 『藥徵』을 보면 京都에서 東洞은 일본 전역에서 나는 약재 뿐 아니라, 중국과 조선에서 수입되는 약재까지 두루 활용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일본의 인삼재배는 豊臣秀吉(1536~1598) 때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시도는 江戸時代 말기인 1720년 시작된다. 幕府의 쇼군 德川吉宗(1684~1751)는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 藥草御用掛를 임명하여 조선의 약재를 조사하게 하는 한편 生根을 구해 보내도록 지시했다. 이후 조선인삼의 生根과 種子를 얻어 인삼이식을 시도하였으나 몇 차례의 실패 후 개성과 기후가 비슷한 日光⁸⁾에서 재배에 성공하였다. 이

3) 安珍均. 韓國蔘業에 關한 地理學의 考察. 東國地理, Vol.- No.4, 1983.

4) 안상우. 고의서산책153. 和漢人蔘考2 - 쇼군의 비밀지령 조선인삼 재배 공작. 민족의학신문. 2003.4.19

5) 차웅석. 18세기 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의학문화교류.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0권 6호. 2006.9

6) 廖育群. 해외특별기고 - 古方派의代表人物吉益東洞. 大韓經絡診斷學雜誌. 2005. 2. pp. 158-180

7) 藥徵에서 길익동동이 언급한 조선의 약재는 황기(下品), 인삼(味甘), 황금(中品), 오미자(上品)가 있으며, 오미자가 가장 좋은 상품으로 평가되었다.

것을 ‘御種人蔘’이라고 한다.

日光에서의 인삼 재배 성공의 정확한 시기에 대하여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모두 1725~1733년 사이로 보고 있다.⁹⁾ 따라서 18세기 일본에서 재배된 인삼은 조선인삼의 종자를 키워낸 御種人蔘임을 알 수 있다.¹⁰⁾ 日光에서의 인삼 재배 성공을 기점으로 일본은 인삼을 자급할 수 있게 된다. 인삼의 씨가 재배를 위해 일본 전역으로 널리 퍼진 것은 1790년 이후이다.

일본 인삼 재배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和漢人蔘考』(1748년 간행)가 최초이다. 이는 조선통신사가 1719년에 일본에 다녀와서 남긴 인삼에 대한 필담을 간행한 것인데, 이를 보면 아직 일본에서 인삼 재배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¹¹⁾ 그리고 일본에서 인삼 재배가 가능해진 이후 집필된 가장 빠른 시기의 문헌으로는 『朝鮮人蔘耕作記』¹²⁾¹³⁾¹⁴⁾(1748년 간행)가 있다. 이 책의 저자인 坂上登(1718~1776)은 1728년 日光에서의 御種人蔘 시배의 성공을 이끈 장본인으로, 인삼의 종자를 얻는 방법과 세척법, 이식법, 토양, 병충해

의 형태와 피해상황, 병충해 예방법, 비료, 인삼구별법 등을 자세히 적어 놓았다.

공교롭게도 일본에서 인삼재배가 시작되던 시기는 吉益東洞이 생존했던 때와 거의 일치한다. 특히 東洞이 京都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하고 말년에 『藥徵』을 집필할 당시에는 御種人蔘의 재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를 통해 길익동동은 어종인삼의 재배와 생산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이를 접했으리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藥徵』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2) 藥徵의 인삼 기록 분석

『藥徵』은 吉益東洞의 저술 가운데 후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본초학 서적이다.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나오는 약물 중 53 종의 약물을 각각 主治·旁治¹⁵⁾, 考徵¹⁶⁾, 互考¹⁷⁾, 辭誤¹⁸⁾, 品考로 나누어 해설했다. 品考에는 吉益東洞이 관련된 여러 종의 약물을 직접 사용해보고 약재의 유통되고 있는 약재의 종류와 산지별 약효, 약용부위, 모양과 진위를 기술 하였다.

『藥徵』의 人蔘 부분 品考는 다음과 같다.

8) 日光(토치기현 닛코토쇼구[栃木縣 日光市])은 일본 3대 인삼 산지 중의 하나인 福島縣(후쿠시마현)의 남쪽에 접해 있다.

9) 안상우와 안진균은 1728년으로 보았고, 김홍철은 1725년으로 보았으며, 김중권은 1733년으로 보았다.

10) 현대의 일본 인삼의 90%를 점하고 있는 주요산지 세 곳, 島根縣, 長野縣, 福島縣 모두가 御種人蔘 재배지이다.

11) 안상우, 화한인삼고2, 조선인삼재배기

12) 이 책은 1747년 처음 저술되어 1748년 초판이 간행되었으며 1764년 다시 중간되었다.

13) 김세운, 朝鮮人蔘耕作記 해제, 한국학연구원.

坂上登(사까우에 노보루, 1718~1776)은 자가 元雄, 호는 弦壺이며 후에 성을 田村으로, 호를 監水로 바꾸게 된다. 그는 江戶에서 대대로 의원을 하던 집안에서 태어나 약초재배에 대한 지식이 많은 인물이었다.

14) 김중권, 朝鮮人蔘耕作記 해제, 국립중앙도서관.

인삼 구별에 관해서는 朝鮮種 인삼과 遼東種의 인삼을 그림으로 비교하였다. 내용 가운데에는 그가 元文 2(1737)년에 御種人蔘 20 뿌리를 종자로 하사받아 28년 동안 키웠다고 적혀 있다.

15) 약을 쓸 때 항상 있어야하는證이 主治,主治에 동반될 수 있는證이 旁治이다.

16)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 주치의 근거가 될 만한 조문을 기록하였다.

17) 主治와 旁治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18) 역대 본초에 대한 지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기록하여 바로잡으려 하였다.

인삼은 上黨에서 나는 것을 옛날부터 상품으로 삼았고 조선의 것이 다음이다. 지금은 上黨에서는 인삼이 나지 않고 조선에도 적다.

①조선에서 수입된 것은 맛이 달아서 (인삼의) 진정한 性¹⁹⁾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경이 말한 心下痞硬에 시험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어 쓸 수가 없다. 源順의 『和名抄』²⁰⁾에 이르기를 : “인삼은 ‘久末乃伊’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일본)에서는 용담을 속칭 久末乃伊라고 하는데 인삼을 부르는 말로도 사용하니 그 맛의 이름이다. 이를 보건대, ②우리나라에서 예부터 사용하던 인삼도 맛이 썼음에 틀림없다. 지금 ③조선 인삼의 싹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것은 맛이 역시 쓰다. 이는 인삼의 올바른 맛이니 桐君과 雷公이 모두 시험한 바이다.

이에 내가 ④우리나라의 각지에서 나는 것을 가져다 써보니 心下痞硬에 큰 효과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은 잎이 5개이고 3개의 가지가 있어서 그 형상이 조선에서 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은 和州·金峰의 것이 가장 좋다. 흙을 제거하고 썰어서 쓰는데 쓴맛을 죽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人蔘 出上黨者, 古爲上品, 朝鮮次之。今也上黨不出, 而朝鮮亦少也。

其有自①朝鮮來者, 味甘, 非其真性。故試諸仲景所謂心下痞硬, 而無效也, 不可用矣。源順和名抄云: 人蔘, 此言久末乃伊。蓋本邦之俗謂熊膽爲久末乃伊, 而亦號人蔘, 則以其味名也。由是觀之, ②本邦古昔所用者, 其味苦也亦明矣。今試③取朝鮮之苗, 而樹藝諸本邦者, 其味亦苦也。然則其苦也者, 是人

蔘之正味, 而桐君雷公之所同試也。

乃今余取④產于本邦諸國者用之, 大有效於心下痞硬。其產于本邦諸國者, 五葉三桿。其於形狀也, 亦與所產于朝鮮同矣。產于本邦諸國者, 出于和州金峰者最良。去土氣而剗用, 謹勿殺苦也。

『藥徵』의 人蔘 品考 부분은 당시 일본의 사가 사용하는 인삼에 대해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東洞은 먼저 고대로부터 문헌에서 가장 좋은 인삼으로 꼽아온 上黨인삼은 당대 존재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로 품질이 좋다고 평가되어 오던 조선삼 역시 생산양이 적다고 적고 있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 수입한 인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조선인삼이며 그 양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이어 동동은 모두 네 가지의 인삼을 언급하고 있다.

①조선에서 수입한 것(朝鮮來者) - 맛이 달고 心下痞硬에 효과가 없다.

②일본에서 이전에 사용한 것(本邦古昔所用者) - 맛이 쓰다. 心下痞硬에 대한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나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③조선인삼의 싹을 일본에 심어서 얻은 것(取朝鮮之苗, 而樹藝諸本邦者) - 맛이 쓰고 心下痞硬에 효과가 있다.

④당시 일본에서 나는 것(產于本邦諸國者) - 맛이 쓰고 心下痞硬에 효과가 있다. 동동이 주로 사용한 인삼이다.

19) 吉益東洞은 약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性은 하나이며, 약이 하는 일(藥能)도 한가지라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인삼의 ‘眞性’은 인삼의 약능, 즉 주치(심하비경)를 치료하는 것을 뜻한다.

吉益東洞. 藥徵: 夫萬物生于天也, 故天命之謂性。性唯一也, 其能亦唯一也, 謂之良能。然其有多能者, 性之所枝而岐也, 非性之本也, 謂之羸能。人之眩羸能, 而謂性多能者多矣。余嘗讀本草, 舉其主治甚多。夫主治也者, 性之能也。一物之性, 豈有此多能哉!

20) 源順이 저술한 和名類聚抄의 약칭이다. 현존하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종일사전이다.

이는 당시 일본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삼을 대체적으로 나누어 말한 것으로 보인다.

①조선에서 수입한 것’은 당시 일본이 조선에서 수입했던 인삼으로 東洞은 이를 직접 구해 사용해 보고는 맛이 달고 心下痞硬에는 효과가 없다고 단언하였다.

②일본에서 이전에 사용한 인삼’은 아마도 동동이 직접 구해 사용해 보지는 못하고 문헌을 통해 접한 것으로 보인다. 東洞은 매우 실증적인 인물로서, 그가 이를 직접 구해 사용해 보았다면 『源順和名抄』라는 책을 인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그 맛이 썼는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언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이전에 사용한 인삼’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알아볼 방법이 없다. 혹 일본인삼으로 알려진 죽절인삼을 사용하지 않았겠느냐하는 의견이 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론이며 죽절인삼의 심하비경에 대한 효과도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③조선인삼의 짹을 일본에 심어서 얻은 것’은 명백히 앞서 설명한 御種人蔘을 이야기한 것이다. 東洞이 실제 일본의 인삼 재배 과정을 목격하고 그 결과물인 御種人蔘을 직접 사용해 보았다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④‘당시 일본에서 나는 인삼’이 바로 東洞이 임상에서 사용한 인삼이다. 문장 내용으로 보아 동동은 ③과 ④를 구분하고 있지만, 이들은 서로 같았음에 분명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 자생인삼이 확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자생되는 인삼 속에는 죽절인삼이 있다. 그러나 죽절인삼²¹⁾은 대나무 마디모양

을 하고 있어 한 눈에 보기에도 조선인삼과는 모양이 많이 다르다. 위의 품고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여러 곳에서 생산된 것들도 5개의 잎과 3개의 가지가 있고, 그 모양이 조선에서 산출되는 것과 같다.(其產于本邦諸國者, 五葉三桺. 其於形狀也, 亦與所產于朝鮮同矣.)”라 하였으므로 東洞이 사용한 인삼(④번)이 죽절인삼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둘째, 『藥徵』 집필 당시 이미 御種人蔘은 일본 각지로 흘어져 재배되고 있었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본 최대 인삼 산지들은 이미 1760년대부터 인삼 재배를 시작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우리나라(일본)의 여러 곳에서 생산된 것들을 가져다 사용해 보니”라는 말은 이러한 정황과 일치한다.

셋째, 그가 ④로 가리킨 것이 Panax Ginseng(고려인삼종)이 아니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왜냐하면 길익동동은 이 모든 인삼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길익동동은 이미 조선에서 수입한 인삼, 일본에서 재배된 인삼을 사용해 보았다. 당시 일본에 존재했던 Panax Ginseng은 이 이외에는 없었다. 따라서 그가 ④에서 가리킨 것이 Panax Ginseng이라면 이는 일본 재배종 밖일 수 밖에는 없다.

그가 ③과 ④를 구분하여 적은 것은 아마도 동동이 어종인삼의 재배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것이 다른 지방으로 이식되어 재배된 정확한 정황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착오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藥徵』을 저술하면서 길익동동이 사용했던 인삼은 조선인삼을 심어서 재배에 성공한 御種人蔘이었음을 알 수 있다.

21) 학명은 *Panax japonicus* C. A. Meyer로 일본 뿐 아니라 중국 서남부, 네팔 등지에서도 자란다.

3) 현대 일본의 인삼재배 산지 분석

그렇다면 조선인삼으로 인삼재배를 한 것이 18세기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을까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후 중국산이나, 자연산 인삼이 있어 새로운 종자로 삼았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현대 일본 인삼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주요 산지인 島根縣, 福島縣, 長野縣 세 현의 초창기를 살펴보았다.²²⁾

① 島根縣의 경우 出雲藩 6대 藩主 松平宗衍公이 1760年 藩 재정의 확충을 위해 御種人蔘을 試作한 것이 최초이다. 이후 1806년에는 일반 농가로까지 보급되었다.

② 福島縣의 경우, 과거 會津藩이 1715年 御藥園을 概說하여 그 일부에 人蔘種子를 심었다. 그 결과가 양호하여 1766년 근교의 門田町으로 재배면적을 확장하였고, 1829년에는 막부의 허가를 받아 중국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③ 長野縣의 경우 예로부터 약초로 유명한 고장이었다. 문헌상으로는 1847년 百姓考太

郎이 御種人蔘의 재배를 試作하였다고 한다.

島根縣과 長野縣은 御種人蔘의 재배가 시작이며, 福島縣은 御藥園을 개설하고 인삼종자를 심었다고 한다. 세 곳 모두 御種人蔘에 뿌리에 두고 재배를 시작한 곳이다. 이에 조선인삼 종자가 일본인삼재배의 종자로써 계속 이어져 왔음이 확인된다. 조선인삼의 종자로 인삼재배를 한 것은 18세기 뿐 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東洞은 인삼 품고에서 일본에서 재배되는 인삼 중에 和州金峰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和州는 大和國(야마토국)의 다른 이름으로 현재 奈良縣(나라현)에 해당한다. 金峰은 大和國에 있는 산 이름이다. 奈良縣은 京都의 남쪽에 접해 있으며 현재의 주요 인삼 산지와는 거리가 있다. 東洞이 심하비경을 없애는데 “가장 좋다(最良)”고 한 인삼이므로 奈良縣에서 난 인삼의 효과를 평가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표 1 吉益東洞의 활동시기와 일본의 인삼 재배 연표 비교

길익동동의 활동시기	연도	일본의 인삼 재배	비고
출생	1702		
	1719	『和漢人蔘考』	일본 인삼재배 없음
	1720	일본의 인삼재배 시도	
	1728	日光에서 人蔘 재배 성공	御種人蔘 재배 시작
京都(교토)로 이사	1738		
이름을 날리기 시작함	1747		
	1748	『朝鮮人蔘耕作記』 간행	
저술활동 시작(방극완성)	1755		
	1760	島根縣 御種人蔘을 試作	
	1766	福島縣 확대 재배 시작	
약정완성(동동 서문)	1771		
활동 마감	1773		

22) 金洪哲. 日本의 人蔘產地形成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論文集, Vol.17, 1978.

3. 傷寒論 處方에 있어 인삼의 현대적 運用에 대한 小考

17세기에 일본에서 吉益東洞은 “마침내 扁鵲·仲景의 방법은 끊기고 그 후 책 한 권, 사람 한 명조차 疾醫의 방법을 論하지 않게 되었다. 그 근원이 漢나라의 太倉公이라면 이미 2천년 남짓 그 방법이 斷絕되어 있다.”²³⁾라고 탄식했다. 그가 말하던 ‘扁鵲·仲景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어떤 연구를 했길래 ‘단절된지 2천년이 지난 방법’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東洞은 “무릇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병을 고치는 것은 方이다. 따라서 의학은 方뿐이라고 하는 것이다.”²⁴⁾라 하였으며 처방에서 약의 有無와, 多少, 去加를 살펴서 『藥徵』을 저술했다.²⁵⁾ 처방은 2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처방을 기준으로 약의 主治證을 알아내고主治證을 잘 고치는 약재를 좋은 약재로 평가했다.

『傷寒論』는 처방과 처방이 치료하는 증상이 대부분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 그러므로 『傷寒論』 연구에 있어서 처방의 주치증과 처방의 구성약재를 분석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된다. 이렇게 『傷寒論』의 처방이 치료하는 증상과 처방구성 약재에 대한 관계가 파악된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傷寒論』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피는 것

이 순서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傷寒論』의 처방 중에서 인삼이 포함된 처방을 대상으로 인삼 투여의 목표를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고, 인삼 운용의 효과적인 방안을 고찰해보았다.

1) 인삼에 대한 역대 기록

(1) 인삼 재배와 관련된 기록

인삼재배는 중국 唐代 관상용으로 처음 재배되었다고 전해진다.²⁶⁾ 그러나 시대적으로 너무 앞선 까닭에 당시에 재배되었던 것이 오늘날과 같은 기원식물을 가진 Panax Ginseng을 의미하는지는 의심스럽다. 이후 인삼 재배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이러한 의심을 가중시킨다. 明代 『本草綱目』에 이르러 “씨앗을 받을 수 있으며 10월에 심는데 그 방법은 채소 심는 것과 같다”는 기록을 통해 인삼 재배의 정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²⁷⁾ 그러나 설명이 소략하고 관련 기록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인삼재배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인삼재배에 대한 명확한 문헌 근거는 1778년 唐秉鈞이 지은 『人蔘考』 부터이다.²⁸⁾ 기타 1726년 日本 長崎에 살던 청국상인인 俞收吉이 幕府에 증정한 『人蔘譜』에는 인삼재배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만주에서 인삼재배 방법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⁹⁾

조선에서 인삼재배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

23) 吉益東洞, 『醫事或問』 問1

24) 吉益東洞, 『醫事或問』 問35

25) 吉益東洞, 『藥徵』, 청홍출판사, 2006. 10.

26) 安珍均, 上계서.

27) 차웅석, 『18세기 조선통신사를 통한 안일의학문화교류』,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 20권 6호, 2006.10.

28) 차웅석, 上계서.

29) 안진균, 上계서.

실록 정조14년(1790) 기사³⁰⁾와 徐有棟(1764~1845)의 『林園經濟志』³¹⁾에서 산에서 채취한 羅蔘과 재배한 家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를 통해 당시에 이미 인삼재배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영학은 그의 연구에서 평안도의 강계지방, 함경도의 함흥 이북지방과 강원도 산골에서 인삼이 많이 채취되었으나 자연 채취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을 중심으로 인삼 재배 방법을 모색하다가 18세기 후반에 인삼 재배가 널리 성행하였다고 하였다.³²⁾ 안진균은 인삼재배의 시작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다만 英祖(1724~1776)末年에 慶尙道 산간에서 산민들이 소규모로 재배한 것을 시작으로, 경상도 전역 및 전라도 지역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³³⁾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에서 인삼재배가 이루어지고 일본으로 기술이 전해지는 데는 불과 수 년이 걸렸을 뿐이다.

(2) 인삼 효능에 관한 기록

인삼의 재배가 이루어지기 전 대표적인 본초서들의 인삼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인삼의 맛이 달고 상당삼과 백제삼, 고려삼이 효과가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다. 5세기 말 도홍경의 『본초경집주』에서 이미 “인삼은 上黨에서 났고 …… 맛이 달다. 속세에서 들어오지 않으므로 백제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 기미는 상당삼보다 열다. 그 다음으로는 고구려의 것을 사용하는데 고구려는 곧 요동이다.”³⁴⁾라 하였다. 이에 관한 인식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본초학 발전 아래로 인삼은 고려인삼, 조선인삼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성훈 등이 역대 본초서에 나타는 인삼 효능을 고찰한 결과³⁵⁾에 따르면 滋養強壯(大補元氣·虛勞內傷·固脫·久服輕身延年·補五臟)에 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調中·補脾胃·消食開胃(脾胃虛弱·吐膿·吐瀉·吐食·吐血·腸胃中冷 등 15개 증상), 開心通血脉(驚悸·怔忡 등 6개 증상), 安精神·益智·定魂魄(健忘·神志不安 등 7개 증상), 补肺中元氣(短氣·少氣 등 5개 증상), 生津液·除煩渴(消渴 등 5개 증상),

30) “신이 지금 약원(藥院)에서 일을 보면서 들으니, 나삼(羅蔘)이 극히 귀해지는 폐단 역시 영남 감영의 관속과 독점 상인배가 이권을 독점하고 조종하기 때문이며, 5.6배의 높은 값을 주고 사서 진상하는 것도 모두 가삼(家蔘)이기 때문에 계속 퇴짜를 맞는다고 하니, 일이 너무도 한심합니다.”(정조14년 4월 30일)

“어전에 쓰는 약에 관한 일은 이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한번 가삼(家蔘)이 성행한 뒤로는 경상도와 원춘도(原春道)에서 봉진한 것이 대부분 가삼입니다. 특히 원춘도의 경우는 가삼을 첨첩이 덧놓아 온갖 교묘한 방법을 내었으니, 일의 체모를 헤아려 보면 실로 해괴하기 그지없습니다. 겨울분을 봉진할 때부터는 각별히 살펴 선택함으로써 죄에 저촉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두 도의 감사에게 신직하기 바랍니다.”(정조 14년 7월 25일)

31) 林園經濟志. 灌畦志. 藥類. 人蔘.

조선 후기에 가농업정책과 자급자족의 경제론을 편 실학적 농촌경제 정책서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16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또는 임원경제십육지라고도 한다.

“근래 수십년 전부터 산에서 나는 것이 점차 고갈되어 집에서 재배하는 방법이 영남에서 시작되어 전국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家蔘이라고 일컫는다.”

32) 李永鶴. 조선후기 상품작물의 재배. 外大史學. Vol.5 No.1, 1993.

33) 安珍均, 상계서.

34) 重修證類本草.

[陶隱居]云上黨郡在冀州西南今魏國所獻即 是形長而黃狀如防風多潤實而甘. 俗用不入服乃重百濟者 形細而堅白氣味薄於上黨. 次用高麗高麗即是遼東形大而虛軟不及百濟 百濟今臣屬高麗 高麗所獻兼有兩種止應擇取之爾實用…….

35) 김성훈 등 3인. 인삼의 본초 및 약리 효능과 향후 연구 방향. 1998. 11.

溫中補陽(頻尿 등 8개 증상), 婦人科(經閉 등 5개 증상), 益氣破堅積(消化道腫瘤 등 5개 증상), 기타(除邪毒·殺金石藥毒 등 13개 증상) 등의 순서이다.

이와 같은 수많은 인삼의 효능은 氣味로 귀납시켜 설명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藥性은 본초서에 따라 微寒·涼·小寒·微溫·溫으로, 味는 甘·微苦·苦로 기술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미에 따라 다른 치료하는 병이 다르다.³⁶⁾ 溫性과 甘味은 補하는 효능을, 寒性과 苦味은 去邪하는 효능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2) 張仲景의 인삼 - 인삼은 心下痞硬을 치료한다.

『傷寒論』에서 사용된 인삼과 이후 본초서들에서 기록한 인삼이 같다고 전제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삼의 효능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다.

『傷寒論』에서 인삼이 포함된 총 22종의 처방을 보면 장증경이 大補元氣나 虛勞內傷 등을 목표로 인삼을 사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재원 등은 『藥徵과 類聚方』을 통한 張仲景의 傷寒論에서의 인삼 활용에 관한 고찰³⁷⁾에서 인삼이 들어있는 처방의 『傷寒論』 조문을 분석한 결과 “『傷寒論』에서는 心下痞硬證을 치료하기 위해 인삼을 사용하였다”-吉益東洞과 같은-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재원의 연구에서 보듯이 인삼이 처방된 方의

『傷寒論』 조문을 분석하면 어렵지 않게 인삼의 효과가 心下痞硬을 없애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神農本草經』 이후 수많은 본초서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傷寒論』의 처방과 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傷寒論』 내부의 논리를 통한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후대 의가들은 『傷寒論』 처방조차도 氣味論을 비롯한 후대에 형성된 이론에 근거해서 그 효능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東醫寶鑑』을 예를 들면 理中湯을 傷寒陰證이나 寒痢에 사용하거나³⁸⁾ 小柴胡湯을 肝熱이나 膽熱에 사용하는³⁹⁾ 등이 그 예이다. 『東醫寶鑑』에서는 理中湯과 小柴胡湯 등 『傷寒論』의 처방 뿐 아니라 다른 의서에 있는 후세방들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의학의 체계 내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분류하였다. 그 자체로 높게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傷寒論』 처방들 사이에 존재하는 법칙을 알 아내기에는 적절한 연구 방법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傷寒論』과 이후의 의서들은 같은 인삼을 사용하면서도 투여하는 목표가 달랐으므로 좋은 인삼에 대한 기준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傷寒論』의 인삼은 心下痞硬을 치료하는데 뛰어난 것을 상품으로 쳤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인삼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연에서 채취한 山蔘이었다.

36) 안덕균, 『氣味論에서 본 人蔘의 效能』, 본초분과학회지 V.7, 1992.

37) 이재원 등 4명, 『약징과 유취방을 통한 장증경의 상한론에서의 인삼 활용에 관한 고찰』, 2007. 7. 26

38) 許浚, 『東醫寶鑑』, 남산당, 1975.

[內景篇·大便·寒刺]와 [雜病篇·寒·傷寒陰證]에 내용이 있다.

39) 許浚, 『東醫寶鑑』, 남산당, 1975.

[外形篇·口舌·口酸]과 [外形篇·口舌·口苦]에 내용이 있다.

3) 吉益東洞의 인삼 - 쓴 맛이 나는 인삼이 心下痞硬을 잘 치료한다.

吉益東洞은 인삼을 고르는 데에 心下痞硬을 잘 치료하는 인삼이 좋은 인삼이다라는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인삼의 효과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심하비경에 효과가 좋은 인삼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었는데 그것은 맛이 쓰다는 것이었다. 『약정』 인삼부의 품고에서 “心下痞硬에 효과가 좋은 것(大有效於心下痞硬)”은 “맛이 써야한다(其味苦也)”고 하였다. 이 문장에서 “맛이 쓴 약재는 심하비경에 효과가 있다”거나, “쓴 맛이 좋은 인삼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東洞이 시험해본 인삼 중에서 心下痞硬에 효과가 좋은 인삼은 공통적으로 쓴 맛이 강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며 좋은 인삼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心下痞硬에 대한 효과 여부이다.

앞서 논했듯이 吉益東洞이 『藥徵』 저작 당시에 사용한 인삼은 조선 인삼 종자를 일본에 심어서 재배에 성공한 御種人蔘이었으며, 기원식물은 조선삼과 같은 Panax Ginseng이다.

4) 傷寒論 處方 活用에 있어 현대적인 인삼 의 品考에 대한 小考

인삼에 관한 연구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약리학적 연구와 전통 본초서를 통한 문헌적 연구로 대별된다.⁴⁰⁾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같은 연구물들은 임상에서 질병치료를 위해 처방하는데 적합한 인삼의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였다. 그에 비해 『傷寒論』에서 『藥徵』으로 이어지는 인삼의 효능에 대한 인식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임상에서 인삼에 대한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다.

心下痞硬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인삼의 현대적인 평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하면서 그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내어 볼까 한다.

1. 心下痞硬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인삼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새로운 검증이 필요하다. 이 검증에는 한국의 인삼 뿐 아니라, 일본·중국 등지의 Panax Ginseng을 모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고려·조선의 인삼이 “甘味와 溫性을 가진 인삼이 補元氣와 起死回生의 名藥이다”라는 기준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품질로 인정받고는 있지만, 心下痞硬에 대한 임상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 한국 인삼의 경우 정부에서 1960년대부터 전매청 전매기술연구소에서 근대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2002년 까지 인삼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해왔으나 2002년에 민간기업이 된 KT&G 중앙연구원으로 개편되면서 홍삼사업 위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품종 개발연구도 계속되어 2007년 9월 현재 8개의 신품종⁴¹⁾이 KG(Korean Ginseng)으로 등록되어 있다.⁴²⁾ 신품종에 자경재래종을 포함시켜서 9개의 품종은 모두 재배가 가능하고 각각 출아기, 뿌리, 잎 등에 대한 특징에 대한 조사가 되어있기 때

40) 이 두 가지를 종합한 것이 ‘김성훈 등 3인. 인삼의 본초 및 약리 효능과 향후 연구 방향’이다.

41) 이성식, 인삼재배 연구. KT&G 중앙연구원. 20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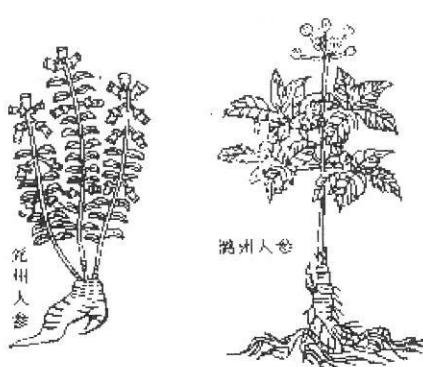
천풍·연풍(2002), 금풍·고풍·선풍(2003), 선원·선운(2006), 청선(2007)

42) 이성식, 상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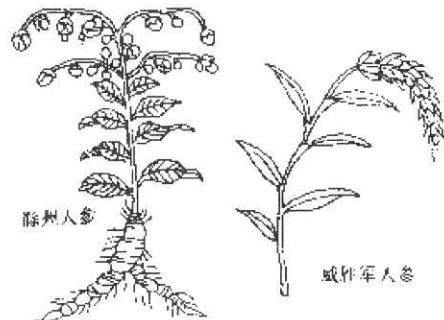
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일본의 인삼은 心下痞硬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기록이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이니만큼 시험 가치가 높다. 대표적인 인삼 산지인 島根縣, 福島縣, 長野縣은 뿐 아니라 奈良縣의 인삼도 연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일본은 2개 품종을, 중국은 3개 품종을 각각 개발하여 등록하였는데 모두 연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연구가 더 나아간다면 다른 가능성, 즉 心下痞硬을 더 잘 없앨 수 있는 약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의학에서 모든 약의 선택 기준은 효과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재를 찾아내는 것은 한약의 효과를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⁴³⁾ 예로 앞서 언급한 일본 자생 인삼인 죽절삼이 心下痞硬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임상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11세기의 본초서인 『증류본초』에는 다음과 이 모양이 다른 네 가지 인삼이 그려져 있다. 과거 본초서를 통해 인삼과 혼용되었던 기원식물들 가운데에서 맛이 쓴 것들을 토대로 임상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43) 吉益東洞은 일본에서 ‘일본에서 예전부터 사용한 것(本邦古昔所用者)’이 있다고 하면서 ‘조선에서 수입한 것’이나 ‘일본에서 재배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언급했다. 이 역시 Panax Ginseng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結論

1. 18세기 일본의 吉益東洞이 『藥徵』 저작시에 사용하였던 인삼은 조선인삼을 심어서 재배에 성공한 御種人蔘이며, 기원식물은 조선인삼과 같은 Panax Ginseng이다. 이 인삼은 맛이 쓰고, 心下痞硬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좋았다.
2. 『傷寒論』의 처방을 통해 『傷寒論』에서의 인삼 투여 목표를 살펴본 결과 이후 한의학 발전을 주도했던 의학서적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후세방에서 인삼을 大補元氣나 調中·補脾胃에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傷寒論』의 저자는 인삼을 心下痞硬 치료를 위해 투여하였다. 이를 미루어 『傷寒論』 처방에 사용된 다른 약재들도 각각 치료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를 밝히는 것이 『傷寒論』의 내부적인 논리체계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한다.
3. 『傷寒論』를 적용시키는 임상에서는 인삼 품고에 대한 기준을 心下痞硬에 두어야 하

며, 心下痞硬에 가장 효과가 좋은 인삼의 종류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형태의 임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일본의 인삼(Panax Ginseng)의 종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장증경의 인삼이 Panax Ginseng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삼과 외형이 유사한 약재들이 心下痞硬에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參考文獻

1. 민족의학신문사編. 임상의를 위한 상한론 강좌. 민족의학신문사. 2009. 9.
2. 安珍均. 韓國蔘業에 關한 地理學的 考察. 東國地理, Vol.- No.4. 1983 : 64
3. 안상우. 고의서산책153 和漢人蔘考2. 서울 : 민족의학신문. 2003. 4. 21
4. 차웅석. 18세기 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의 학문화교류.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0권 6 호, 2006.9.19 : 1422-1423
5. 廖育群. 古方派의 代表人物吉益東洞. 大韓經絡診斷學雜志. 2005. 2. : 158-180
6. 吉益東洞. 藥徵. 청홍. 2007 : 116-127
7. 金洪哲. 日本의 人蔘產地形成에 關한 研究. 서울 : 東國大學校論文集, Vol.17 No. 1978 : 230, 236, 237-238
8. 김세은. 朝鮮人蔘耕作記 해제.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HEJ/HEJ_NO_DEVIEW.jsp?setid=299268&pos=0&type=HEJ&ptype=list&subtype=jg&lclass=10&cn=GE44080_00)
9. 김중권. 朝鮮人蔘耕作記 해제. 국립중앙도

서관홈페이지.

(http://www.nl.go.kr/search/web_search/search/detail.php)

10. 宋唐慎微. 中國醫學大系8 證類本草. 麗江出版社.
11. 김성훈, 김동희, 이태영. 人蔘의 本草 및 약리 효능과 향후 연구 방향. 고려인삼학회지 Vol.23. No1. 1998.11. : 28-32
12. 안덕균. 氣味論에서 본 人蔘의 效能. 본초 분과학회지 Vol.7. 1992. : 30
13. 이재원, 신진봉, 이승희, 원진희. 藥徵과 類聚方을 통한 張仲景의 傷寒論에서의 人蔘 활용에 관한 考察.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1권 5호. 2007. 7. 26 : 1062-1063
14. 許浚. 東醫寶鑑. 남산당, 1975.
15. 안상우. 고의서산책295 朝鮮人蔘耕作記. 민족의학신문. 2006.6.9
16. 이성식. 인삼재배 연구. KT&G 중앙연구원, 2007.9. : 4-6
17. 李永鶴. 조선후기 상품작물의 재배. 外大史學, Vol.5 No.1. 1993